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봄꽃들은 피어나는데, 미세먼지는 하늘을 덮고

3월 중순, 남녘에는 꽃샘추위를 이겨내고 노란 유채꽃, 붉은 홍매화가 피어나는데, 하늘엔 미세먼지가 희뿌연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다고 믿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이 늦는다는 우수(雨水, 2월 18일)도 지나고, 땅 밑에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뛰쳐나온다는 경칩(驚蟄, 3월 5일)도 지나고,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봄기운이 무르익는다는 춘분(春分)이다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생각나는 환절기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혼돈과 격변의 격랑(激瀾)에 휩싸여도 자연의 순환은 멈추지 않는다

인간 세상이 평화롭던 전쟁 중이던 관계없이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어김없이 찾아온다. 유수(流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인간들은 덧없는 삶을 바라볼 뿐이다

순간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 속을 헤치며 살아가야 한다. 바닷가의 파도처럼 쉴 사이 없이 밀려오는 삶의 문제들은 우리를 고뇌와 좌절, 상처를 안겨주기 쉽다

고통과 패배를 맛보게 한다. 끝없이 밀려오는 위태로운 그 사이에서 편안함을 취하고 자기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자는 위대하다

모두가 지치고 불가능하다고 단념할 때, 희망과 신념을 갖고 분연히 일어나서 조용히 자기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은 신비롭고 위대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는다.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 바다나 산이나 대자

연은 말이 없다. 소리가 없다. 소리 없이 자기의 일을 한 치도 오차(誤差)없이 실행한다. 허공에 떠서 자전(自轉)과 공전(公轉)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는 지구

지금이나 자칫 남의 의견이나 남의 이익, 남의 종교, 남의 인종, 남의 나라, 남의 이념은 완전히 틀렸다고 배척하고 없애버릴려고 하는 배타심과 적대감으로 무장하여 끝없는 갈등과 투쟁을 하게 된다

수천 년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 압박과 실용, 고통과 억울함을 당했을까. 강자가 권력과 금력을 손아귀

에 쥐게 되면 무적의 불패(不敗)강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다행히 영원할 수는 없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21세기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과 문제들이 쌓여 있다.

3월 10일부터 6박 7일 동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순방을 끝내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최근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강남의 버닝썬(burning sun) 사건, 장자연 사건, 김학의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조사의 명운(命運)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 버닝썬 사건에 52만 명, 장자연 사건 제수사에 64만 명이 동참할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큰 점이 고려되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수사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의 공통점은 권력과 금력이 결합하여 힘없는 여성을 농락한 사건이다. 버닝썬 사건은 마약까지 복용한 혐의가 있고, 장자연 사건은 힘 있는 신문사 사주(社主) 가족까지 연계된 사건이다.

돈과 권력, 세스와 마약은 인간을 취하게 하는 마약이다. 돈과 권력, 성(性)은 인간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활력소로 양심과 상식과 법규범 안에서 건강하게 취득하고 활용해야 할 힘과 의무가 있다.

악(惡)은 달콤하지만 파멸을 가져온다. 선(善)은 불차분 맛없지만 상생(相生)을 가져온다. 이것이 진리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社說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해야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수입·신뢰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여전히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구태가 반복된 가운데, 정부가 부정행위를 뿌리 뽑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현 규정을 완화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기로 했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다.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에만 선거 공보, 벽보, 어깨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일반적인 선거보다 선거운동의 폭이 좁다.

이처럼 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비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비리와 무자격조합원을 근절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선관위, 국회와 협조한다. 또 농협중앙회와 협조해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도 강화한다.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무자격조합원을 없애고자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한다. 자격이 없는데도 명부에 이름을 올려 한 표를 행사하는 무자격조합원 탓에 선거의 효력을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문제점이 많은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조합장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Table with 4 columns: Character, Meaning, Reading, and Example. Includes characters like 諸, 姑, 伯, 叔 and their meanings.

다른 전사들 -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눈을 감으면 아직도 선하다. 월드컵으로 온 국민이 울고 웃었던 2002년 그날의 대한민국이, 그곳엔 붉은 티를 입고 거리로 나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두 번째 태극전사가 되어 거리를 붉게 물들이는 데 한 몫 하던 어린 나도 있었다.

하지만 그 환호의 뒤편에서 더 붉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간 다른 전사들이 있었음을 그 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터키와의 3.4위전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새벽의 제2연평

해전,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사건 그리고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 사건을 포괄하여 당시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 '서해 수호의 날'이다.

이 날은 제2연평해전에서 국군 6명, 천안함사건에서 국군 46명 및 구조작업을 하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 그리고 연평도 사건에서 국군 2명 및 민간인 2명, 이상 희생된 국군 55명과 민간인 2명을 기리는 날이다.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세계 사건의 호국영웅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충충원에 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붉은 티를 입을 때 그들은 붉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기억이 시들해져 갈 즈음 다시금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떠올려야 한다. 그들 덕에 우리는 다음 날 눈을 뜰 수 있었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 눈을 감았다.

문득 출근 첫날 청장갑의 식사 때 들었던 말이 떠오른다. "보훈은 나라의 보훈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희생

한 이들을 남겨진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엔 나라가 그들에게 잊혀질 것이다

우리 민족은 천여 차례에 걸친 외침 및 일제의 압박 속에서 이미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다시금 같은 실수를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그런 중요한 부처의 최일선에 서있는 사람으로서 찾아오는 유공자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봉사하며, 나라를 지키는 나만의 방법을 실천할 것을 그날의 잊혀진 전사들을 반추하며 다짐해본다.

11김민석 / 전남서부보훈지청 보성과

Advertisement for '문화용성' (Munhwayongseong)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our position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n Women's Welfare Foundation.